

가부장 사회 속 여성의 금기적 욕망: 영국 르네상스와 오비드풍 설화시

김민정

차례

- I. 서론
- II. 금기 위반의 장(場): 오비드의 『변신』
- III. 영국 르네상스와 오비드풍 설화시
- IV. 결론

I. 서론

한 민족, 정당, 가정 혹은 조합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했던 중세인들과 달리 르네상스 인들은 영적인 개인(spiritual individual)으로서 자신을 인식했다고 부르크하르트(J. Burckhardt)는 주장한다(81). 그러나 근래의 비평가들에 따르면 부르크하르트가 말한 종교와 사회적 구조로부터의 르네상스인의 개인적 자유는 실상 강제와 제어로 이루어진 교환의 결과물에 불과하다(Cohen 21). 16세기 르네상스 영국에서 이를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의 통치 방식 속 권력과 젠더(gender)의 역학관계이다.

변화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언제나 변경될 수 있는 르네상스 인의 자리가 갖는 불안함은 인간의 타고난 조건인 성별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만들었다. 권력자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역시 이 불안함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성별에 집착하는 불안함을 오히려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한 열등한 여성적 존재임을 내세워 정치적 몸(body politic)이 자연적 몸(body natural)에 우선함을 역설한다. 여성의 결점들은 하나님께서 없애 하신 왕좌에서

보면 자신의 눈에는 작게 보인다는 논리를 내세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게 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다(Heisch 34-5)¹⁾. 이는 그녀가 남성적인 왕으로 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성성을 십분 활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당대 영국의 많은 궁중 관련 수사들(rhetorics)은 여왕의 무조건적인 통치를 위한 수단이 아닌 성별을 이용하여 그녀와 궁중인들이 서로 정치적 이점을 얻어내려는 장이었고, 이 때 유행한 범접할 수 없는 여인에 대한 찬양인 페트라르카 소네트(Petrarchan sonnet)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당대 영국에서는 가부장적 성별에 반하는 금기적인 욕망을 소재로 한 오비드풍 설화시(Ovidian narrative poem)도 동시에 유행하게 된다. 가부장적 성별에 집착하는 영국 르네상스 시대에 이러한 오비드 풍 설화시가 유행하게 된 것은 역사적 현실과 반하는 봉기적인 것일까.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이 설화시들이 모티프로 삼은 오비드(Publius Naso Ovidius)의 『변신』(Metamorphoses) 속 여성들의 금기적인 욕망과 영국 르네상스 오비드 풍 설화시 여성들의 금기적인 욕망의 양상을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II. 금기 위반의 장(場): 오비드의 변신

본질적으로 금기는 사회 제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바타유는 노동세계²⁾가 금기들을 통해 폭력을 배제함으로써 이 세계가 지향하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

-
- 1) “이 문제(왕권)의 무게와 위대함은 여자이기 때문에 기지와 기억력 모두가 부족한 내게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심지어 부끄러움까지(내 성별에 어울리는)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알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왕자의 자리와 왕위는 이러한 두 가지 결점들이 내 눈에 적게 보이게 합니다.” (The weight and greatness of this matter might cause in me being a woman wanting both witt and memory some feare to speake, and bashfulness besides, a thing appropriat to my sex: But yet the princely seate and kingly throne, wherein God, (though unworthy) hath constituted me, maketh these two causes to seme litle in myne eyes.)
- 2) 바타유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애초의 동물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식과 이성의 바탕이 된 것은 무엇보다 노동으로서 인간의 문명 세계는 노동세계에 다름아닌 것이다(『에로스의 눈물』 37).

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에로티즘』 46). 금기를 위반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강한 욕구로 인해 금기가 상정되지 않고는 노동 세계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Freud 52). 특히 인간에게는 동물의 본능과는 달리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타인을 죽이거나 그 혹은 그녀와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 속 금기는 주로 죽음과 성(性)에 관계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금기의 위반에 제한이 있다 해도 그것은 형식에 그쳤을 뿐이었다고 바타유는 말한다(『에로티즘』 75-6). 인간은 죽음과 성에 관계하는 폭력 충동을 자기 안에 가두면서 그것을 현실에서도 가둔 것으로 생각했으나, 폭력을 막기 위해 사용한 방어벽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면 인간이 지키던 금기들도 덩달아 의미를 상실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잘 다스려왔던 폭력 충동이 폭발하면서, 이제 인간은 마음대로 살해를 저지르기에 이르며, 성적과잉을 조절하지 못해 그만 조심스럽게 하던 것을 아무 두려움 없이, 절제 없이 공개적으로 하게 된다. 이는 금기 규정이 절대적인 법이 아닌 표면상으로는 공공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변덕에 의해 지배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해의 금기는 모든 경우에 금지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만 금지되어 왔고, “육체적 존재는 오직 결혼에 의해 완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성의 금기도 “관례를 따르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어 왔다(『에로티즘』 81 재인용). 여기서 금기 위반이 허용되는 어떤 상황이란 노동 세계와 폭력 세계를 가르는 금기를 지키지 않고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존재나 집단이 출현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 존재 혹은 집단에게는 주로 금기를 범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을 안정으로의 복귀가 마련되어 있어(『에로티즘』 90) 인간 노동 세계가 정한 금기들을 자유롭게 범하게 된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노동 세계의 금기를 제정하고 제어하는 권력자와 이를 대변하는 집단이, 문학에서는 인간과 신의 차이를 무시하고 인간의 금기를 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신들이 인간 사회의 금기를 위반하는 자유를 얻게 된다. 이들이 자유롭게 금기를 위반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간 사회 속 금기가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지배를 영속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본 교에서 논하는 오비드(Ovidius Naso)의 『변신』

(*Metamorphoses*)도 신들이 인간 사회로 들어가 인간의 성적 금기를 위반하는 모습을 남성 중심으로 묘사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금기를 드러낸다. 그러나 변신에서의 신들은 인간이 그들의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기를 범하는 것과 달리³⁾사랑에 빠져 성 금기를 범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비드 『변신』은 인간 사회 속 금기의 상대성을 폭로하기 보다는 신들로 대변되는 인간의 금기적인 성적 욕망에 담긴 심리를 강조하게 된다.

『변신』은 남성, 주로 남신(男神)의 성적인 욕망에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고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힘(권력)으로 작동하는 가부장적 사회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을 거부하려는 여성은 결국 육체를 버리고 변신하게 된다. 폭력적인 이성에 관계를 거부하면 여성으로서의 신체를 버려야 하는, 여성의 존재 자체가 남성의 존재를 상정할 때만 가능한 남성중심의 사회이다. 물론 뮈라(Myrrha)가 근친상간의 욕망을, 이피스(Iphis)가 레즈비언적인 욕망을 주체적으로 드러내지만⁴⁾ 뮈라의 욕망은 아버지에게 추방당함으로써 가부장적인 가족이데올로기에, 이피스의 욕망은 이피스가 남성으로 변신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인 이성에 이데올로기에 종속된다.⁵⁾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근친에 대한 욕

3)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에 따르면 근친상간 금기는 어떤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문화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타인에게 주고 타인의 것을 내가 갖는, 즉 교환을 일으키는 원리이다. 근친 결혼이 생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족 결혼이 사회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에 근친 상간 금기가 설정되어 왔다는 것이다(Levi-Strauss 595). 그래서 때로는 자손을 얻을 목적으로, 권력의 상승 효과와 왕위 계승을 위해 딸이 아버지와 혹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즉 근친 상간 금기를 범하는 양상이 인간의 역사 속에 표현되어 왔다(최창모 166).

4) 『변신』 10권에서 뮈라는 유모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키누라스(Cyniras)왕과 동침을 하게 되지만 한밤 중에 불을 밝혀 뮈라의 정체를 알게 된 키누라스는 그녀를 죽이려 한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를 피해 달아나 방황하게 된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자신이 비난받을 것이 자명하다며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신들에게 하여 결국은 사람으로써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나무로 변신한다. 근친상간의 욕망을 품은 그녀는 인간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인간 사회로부터 완전한 추방을 받게 된 것이다. 『변신』 9권에 나오는 남장여자인 이피스 역시 여자 이안테(Ianthe)를 사랑하지만 이피스 자신이 신의 도움으로 남성이 됨으로써 이안테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사회적으로 용인받게 된다.

5) 자신의 자녀를 죽인 메데이아(Medea)와 프로크네(Procne)의 경우 도망이나 변신을

망, 레즈비언적 욕망, 부친을 배신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녀를 살해하고자 하는 욕망 등 『변신』 속 여성들의 금기적인 욕망은 그녀들 스스로의 윤리적인 판단과 죄책을 담고 있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행하는 욕망의 의지적인 면이 부각된다.⁶⁾ 즉 여전히 가부장 사회구조를 지지하는 것으로서의 금기가 『변신』 속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비드 특유의 가치들에 대한 분열된 인식 혹은 인식의 불일치라는 자의식적인 심리묘사를 통해 더욱 강조된다.

『변신』은 표면상으로는 창조부터 로마 건국까지의 세계역사와 다름이 없지만 인간 욕망의 심리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Kenney xviii). 게다가 작품 속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오비드의 『변신』을 이해하는 중심적인 요소가 될 정도로(Enterline 10) 『변신』은 일방적인 성적 욕망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여기서 작품의 텍스트는 단순히 성적인 범죄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범죄를 말하고 그 범죄를 실행하는 것 사이의 접합점을 강조한다(Marder 158). 왜냐하면 『변신』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자연적인 변이 과정으로서의 변형이 아닌 상호적이지 않은 성적 욕망으로 인한 변신을 다루기 때문이다. 오비드는 변신이라는 결과보다는 변신의 결과를 가져온 인물들의 욕망에 담긴 심리적 변이를 집중적으로 묘사한다. 『변신』에서 변신(transformation)이라는 사건은 작품의 250개나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긴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는 변신이 전혀

통해 처벌을 면함으로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듯 보인다. 그러나 자녀를 살해하는 금단의 욕망과 잔인함이 여성에게 돌려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남성 이아손(Iason)과 테레우스(Tereus)의 불륜의 심각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남성중심적인 가부장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 6) 뒤라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욕망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며(too conscious of her guilt. *Met.* X. l. 413) 자신과 같이 사악한 것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Why wicked wench? l. 383). 뷔블리스는 자신의 생각이 ‘부정한 욕망’이라하며(perverted passion, *Met.* IX. l. 606)오라비에 대한 누이의 사랑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Let me love/ My brother with a proper sister's love! l. 608). 메데이아도 자신이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알고 있지만 옳지 않은 길을 따르려 하고 있다고 고백한다(The best I see and like: the worst I follow headlong still. *Met.* VI. l. 25). 프록코네 역시 죽이고자 하는 아들의 재물을 보고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쩔 수 없다며 살인의 욕망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The mothers heart of hers was then constreyned to relent, *Met.* IV. l. 794).

일어나지 않는다. 변신이라는 소재는 고대 신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로 오비드의 『변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이야기들에 변신이라는 결말을 줌으로써 작품에 통일성을 주는 것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리고 대개 변신이라는 결말은 인간 삶의 순환 주기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이에 대한 경이로움을 환기시킨다(Griffin 64).

그러나 오비드가 묘사하는 변신은 자연이 주는 경이감이 아닌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변신하는 기묘함과 심지어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이런 변신의 원인이 된 과도된 성적 욕망은 『변신』 속 인물들의 언어 활동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오비드는 신체적인 위반에 관한 이야기를 언어의 변천을 극화하는 것으로 사용한다(Enterline 3). 그리고 여기서 가치들에 대한 분열된 인식 혹은 인식의 불일치라는 자의식적인 심리묘사가 강조된다. 이 묘사는 『변신』에서 분열된 의식은 목소리들간의 충돌로 나타나며, 특히 금기적인 성적 욕망을 둘러싼 상반된 가치관들을 오가며 갈등하는 한 인물의 내적 논쟁으로 구성된다.

물론 오비드 이전에 아폴로니우스(Apollonius), 에우리피데스(Euripides) 그리고 호머(Homer) 역시 내적인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는 인물들을 창조해 왔다(Scholes and Kellogg 160-206). 그러나 오비드의 성격 묘사는 인물에 의해 명확하게 인지되고 이해된 대조적인 가치관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독백, 분열된 의식을 더욱 나쁜 선택에 대한 합리화로 향하는 수사학적 경향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이들과 다르다(Milowicki and Wilson 231). 싸움 혹은 도주라는 영웅적인 선택⁷⁾의 범위를 넘어서 대조되는 가치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더 나쁜 쪽으로 선택하는 모습은 인물의 자의식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여기서 오비드는 종종 분열에까지 이르는 축소-하나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지배하는, 인물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현상을 창조한다. 이는 기존 독백 서사와는 사뭇 다른, 반대되는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화자의 목소리(narrative voice)이다. 게다가 인물의 내적 독백

7) 이는 종종 싸움과 도주 여부에 대한 내적 논쟁을 벌이는 영웅의 선택에 초점 맞춰진 고대의 토포스이다. 호머의 『일리아드』(Iliad)에서 아킬레스(Achilles)의 진퇴양난에 처한 선택(IX. 410 ff.)과 헥토르(Hector)가 그 자신과 벌이는 논쟁이(X X II.99 ff.) 여기에 해당된다.

에서 화자가 그 혹은 그녀 자신의 수화자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내적인 분열은 더욱 부각된다. 그리고 앞서 논했듯이 이렇게 분열된 자의식은 『변신』의 많은 여성 인물들에게서 발견된다. 뮌라(Myrrha, *Met.* X. 298-559)와 뷔블리스(Byblis, *Met.* IX. 450-665)를 예로 들면 이들은 상반된 가치관 사이에서 내적으로 갈등하며 자신과 논쟁을 벌이지만 근친상간을 허용하는 사회, 남매 간 결혼을 한 신들의 경우를 들어 자신들의 금기적인 욕망을 합리화한다.

그러나 오비드는 『변신』의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성적인 폭력과 아름다움을 연결시켜 남성 인물의 성적 욕망의 모순적 심리도 드러낸다(Enterline 32).

『변신』에서 여성은 강간이나 납치로부터 저항하는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저항과 도주가 아름다움을 강화하며 결국에는 거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정의하기에 이른다. 다프네(Daphne)의 경우처럼 『변신』에서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저항의 원칙을 구현함을 의미할 정도이기에 여성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남성의 욕망하는 시선 속에서 창조된다. 여성을 성적으로 강압할수록 아름다워지는 상황은 남성의 폭력적인 성적 욕망의 원인을 아름다움으로 합리화하는 모순을 강조한다⁸⁾.

다만 『변신』속 등장하는 남성 신 혹은 인간 남성들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이 너무 강해 어쩔 수 없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묘사된다.⁹⁾ 같은 금기적인 욕망일지라도 여성의 욕망이 남성의 욕망보다 더 고의적인 악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기괴함을 자아낸다.¹⁰⁾ 그러나 금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여성들이 금기와 연관

8) 달아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다프네(*Met.* I. Hir running made hir seeme more fayre. l. 645), 태양신에게 겁을 먹은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레우코도에(*Leucothoe, Met.* IV. Hir feare became hir wonderous well. l. 278)가 이 예이다.

9) 에우로파(Europa)를 강간하려는 주피터(Jupiter)의 욕망에 대해 화자는 사랑을 성취하려는 마음과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은 원래 조화도 양립도 불가능한 것이라 설명한다(Betweene the state of Majestie and love is set such oddes, *Met.* II. l. 1057). 처제 필로멜라(Philomela)를 범하고자 하는 테레우스(Tereus)의 욕망 역시 트라키아 사람들이 원래 감정적이라 그가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묘사한다(For of those countries commonly the people are above/ All measure prone to lecherie. *Met.* VI. ll. 586-87).

된 상반된 가치관들에 대해 자의식적으로 고뇌하며 선택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육체만이 아닌 이성적인 존재로 부각된다. 그리고 『변신』 속 금기적인 욕망을 지닌 여성들 대부분이 겪게 되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변신하는 결말은 기괴함과 동시에 이들의 욕망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었다는 의미의 가부장 질서를 옹호하는 신성함을 전달한다.¹¹⁾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따르면 금기는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끝없이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신의 계율이 아닌 가부장 질서에 바탕을 둔 금기는, 그것을 지정한 사회의 안정을 위해 다가가서는 안 되는 신성한 느낌을 자아내지만 동시에 금기를 위반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금기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금기를 위반한 자는 그 금기의 속성을 갖게 된다고 여겨져 그 자신 자체가 금기가 된다(37, 52-53). 그러므로 오비드 『변신』에서 성적 금기를 범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지닌 인물들은 남성중심적으로 숭배와 두려움이라는 이중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묘사되거나 그러한 이중적인 감정을 의식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즉 『변신』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사회를 지지하는 것으로서의 성적 금기가 작용하는 가운데 이 금기에 대한 숭배와 두려움이라는 모순적인 인간의 심리가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비드의 우화를 통해 기독교적인 교화를 성취하려 한 중세와 달리 르네상스 영국 작가들은 『변신』의 우화들이 갖는 금기적 성적 욕망에 담긴 이중성을 의식하고 있었다.

10) 아폴로(Apollo)와 히아신스(Hyacinth), 쥬피터(Jupiter)의 가니메테(Ganymede)납치 그리고 오르페우스(Orpheus)가 어린 소년이나 청년에게 갖는 동성애적 사랑은 『변신』의 사회 속에서 인정되지만, 뫼라와 이피스의 가부장 사회에 반하는 욕망이 금지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속한다.

11) 『변신』에서 남성의 욕망을 거부하여 겪게 되는 여성의 변신은 남성을 거부하면 더 이상 여성으로 존재할 수 없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의 매커니즘을 나타낸다.

Ⅲ. 영국 르네상스와 오비드풍 설화시

16세기 르네상스 영국에서는 제국주의적 팽창과 더불어 언어적인 확장도 강조되었다. 근 30년간(1455-1485) 지속된 요크가(the House of York)와 랭캐스터가(the House of Lancaster) 사이의 장미전쟁이 헨리 튜더(Henry Tudor)에 의해 랭캐스터가의 승리로 종결 된 이후, 튜더 왕조의 왕들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봉건 귀족들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중앙집권적 국가를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게다가 헨리 8세(Henry VIII)가 표면적으로는 캐서린(Catherine)과 이혼하기 위해 1534년 수장령(Supreme Head on Earth of the English Church)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교황청으로부터의 영국의 독립과 자국의 정체성 수립을 도모하게 된다. 이 때 영국의 독립성과 정체성 형성에 있어 영어의 위상 확립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당대 영국 인문주의자들 대부분 영어를 희랍어나 라틴어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자¹²⁾ 고전 수사학, 특히 표현을 중심으로 문자화된 비잔틴 수사학을 영어에 적용시킨다. 비잔틴 수사학은 로마 공화국의 몰락에서부터 6세기 말엽까지의 수사학으로 로마 공화정의 몰락 이후 로마의 절대 군주제와 제국의 확장이 강조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수사학의 기본 요소 중 개인의 독창성이 존중되는 창안이나 화제의 발견보다 표현의 기교를 강조한다. 중앙 집권적 국가에서 수사학은 희랍어나 로마 공화정에서처럼 정치적인 연설이나 법정 연설에 실제적으로 관계하기 보다는 국가의 행사나 국민적 영웅, 제국의 과업을 칭송하는 언어 즉 설득의 논리보다는 표현의 풍요로움과 과시적 웅변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포드(Oxford) 대학의 수사학 교수였던 리차드 레이놀드(Richard Rainold)도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전 유럽에 걸쳐 수사학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비잔틴 수사학자 앵쏘니우스(Aphthonius c. 400)의 『수사학 예비 훈련』(*Progymnasmata*)을 번안하여 1563년 『수사학의 기초』(*The Foundation of Rhetorike*)를 출판함으로써, 비잔틴 수사학에서 강조된 국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전파하는 수사학의 기능을 충실하게 받아들인다. 당대

12) 영어는 통상 그것의 조잡함, 격식없음, 세련미의 부족(barbarity, indecorum, and lack of cultivation)으로 인하여 희랍어와 라틴어로부터 구별되었다(Keilen 3).

존 체크(John Cheke), 토마스 윌슨(Thomas Wilson), 조오지 퍼트넘(George Puttenham)등이 주도했던 모국어 사용 운동 역시 국가적 힘의 강화와 팽창욕으로 이어져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군주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문체론적으로는 증폭된 언어기법 즉 장식적인 언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비잔틴 수사학의 영향 아래 연설이 아니라 글쓰기 과정 즉 언어의 효과적인 구사에 관계하는 영국 르네상스 수사학은 시학과 구분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강력한 군주제를 옹호하는 당시 영국은 웅변가가 국가에 대한 비평도 할 수 있다는 키케로(Cicero)의 문화적인 원칙을 허용하지 않아 당대 수사학은 그 자체에 고립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 경향은 오비드풍의 에로틱한 설화시의 유행으로 나타난다(Aughterson 274-75).

1590년대 초반 영국에서 유행한 두 가지 시 장르는 소네트(sonnet)와 설화시였다. 두 장르 모두 문학적인 탁월한 기량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허락된 것이지만 시적 스펙트럼에 있어 거의 양극단에 위치해 있다. 소네트 형식은 14행과 일정한 압운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어 시를 제어하고 집중시키는 데 큰 엄격함을 필요로 한다. 이와 반대로 설화시는 형식과 길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작가에게 언어적인 확대, 장식 그리고 여담을 위한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고유한 요소들도 포함 시킬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 그래서 장식적인 언어가 강조되던 르네상스 영국에서 작가들은 설화시 장르를 통해 자신의 언어적인 역량을 펼쳐 보이기를 원했다(Hyland 55). 그리고 이러한 설화시의 원천과 모델은 호머(Homer)나 버질(Virgil)의 작품이 아닌 오비드의 에로틱한 저작들이었다. 특히 오비드의 『변신』은 라틴어 작시 형식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여러 우화들이 작시 소재의 풍부한 원천이 되었다.

당시 문법학교(Grammar School) 학생들은 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수사학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라틴어로 우화를 도덕적으로 설명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이 때 작문 또는 연설의 소재로 오비드 『변신』의 우화들이 사용되며 수사학과 시학의 구분이 없던 이 시기에 이 우화들은 작시의 풍부한 소재로도 이용된다. 또한 앞서 논했듯이 오비드는 『변신』에서 강간, 부녀간 혹은 남매간의 근친상간 등 금기적 성적 욕망에 담긴 대조적 가치관에 대한 의식

과 합리화를 통해 인간의 금기적인 성적 욕망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키치(William Keach)는 영국 오비드 풍 시에 영향을 준 오비드 작품의 특징 중 하나로 ‘에로틱한 경험에 대한 이중적인 접근’(ambivalent approach to erotic experience)을 든다. 그는 오비드의 작품들이 아름답고, 감정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물론 유머러스하고 그로테스크하며 그 잔인함에 있어 동물과도 같기까지 한 인간의 성적인 사랑의 양면성을 모두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Keach 4-5).

작문 또는 연설의 소재로 오비드의 우화를 소개한 것은 1563년 리처드 레인올드(Richard Rainolde)가 영국 독자들을 위해 변안한 엡소니우스의 『수사학 예비훈련』으로 엡소니우스는 모범적인 연설의 시초는 우화에 의해 고안된 연설이며 오비드가 이솝(Aesop)과 마찬가지로 훈계와 충고를 전달하는 우화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마스 윌슨(Thomas Wilson)은 『수사학의 기술』(*The Arte of Rhetorique* 1553)에서 오비드의 『변신』의 우화들이 단순히 교훈만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주제들에 대한 ‘위장된 비판’(disguised commentaries)으로 읽힐 수 있다고 말한다(Maslen 17-18 재인용). 『변신』을 1567년 영어로 번역한 골딩(Arthur Golding) 역시 오비드의 우화들이 엄격한 검열로부터 시인을 보호하기 위한 허구적 가장(guise)이 되어왔음을 논한다. 골딩은 시인들이 『변신』의 우화 속 신들의 이름으로 가장하여 모든 상태의 악과 잘못들을 은밀하게 조롱한다고 말한다(Golding 2). 게다가 16세기 말 오비드를 도덕적, 우의적 그리고 현학적으로 해석하는 전통을 전복하는 요소들과 모순적인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지닌 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Keach x vi). 특히 이 시기의 작품들은 『변신』의 우화들 속 변형에 신비감을 주는 요소들을 축소하거나 기존의 성 역할이나 정체성에 반하는 요소들을 묘사하여 인간의 금기된 성적 욕망을 더욱 강조한다.

마스틴(John Marston)의 『피그말리온 석상의 변신』(*The Metamorphosis of Pygmalion's Image* 1598)에서 피그말리온은 갈라테아(Galatea)가 여전히 석상일 때 그녀를 껴안고 애무하며 침대로 데려가 누이고는 인간이 되어달라 애원한다. 오비드의 『변신』의 피그말리온이 석상을 긴

의자에 눕히고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는 것과 대조적인 장면으로 마스턴은 이에 더해 석상이 인간으로 변신 한 후의 에피소드까지 생략함으로써 변신에 담긴 놀라움과 신비감을 줄이고 인간 여성이 아닌 석상을 향한 남성의 오도된 성적 욕망을 강조한다. 로지(Thomas Lodge)의 『스킬라의 변신』(*Scyllaes Metamorphosis* 1589)에서도 오비드의 스킬라가 글라우코스(Glaucus)를 사랑한 키르케(Circe)의 악한 마법에 의해 괴물로 변하는 것과 달리 로지의 스킬라는 단지 녹아서 사라진다. 글라우코스가 인어의 모습을 띤 바다의 신으로 변신하는 모습도 생략되어 있어 작품 속 변신에 대한 경이감이 축소되어 있으며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존재가 그의 기괴한 외형을 보고 놀라는 여성을 향해 갖는 욕망이 더 부각된다. 또한 로지의 스킬라는 수사적인 대조법과 추상적인 명사를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¹³⁾ 구애에 수줍어하거나 말없이 도망치는 기존 여성상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Lerner 134). 말로우(Christopher Marlowe)의 『히어로와 리앤더』(*Hero and Leander* 1593)의 히어로 역시 남성 리앤더의 가슴에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내 던지며 기존 성 역할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리앤더를 그의 여동생과 장난하는 오빠로 묘사함으로써 근친상간의 이

-
- 13) 이렇하니 당신의 애정을 저 서쪽바다로 싸 가지고 가세요
 당신의 머리를 고요한 강물 안에 가리 운 채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아름다움은 당신의 사랑을 달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가슴에서 공상이라는 것이 최근에 달아나 버린 이래로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떠남으로 보여 주세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고통을 초래하니깐요

Packe hence thou fondling to the Western Seas,
 Within some calmy river shrowd thy head:
 For never shall my faire thy love appease
 Since fancie from this bosom late is fled:
 And if thou love me shewe it in departing:
 For why thy presence dooth procure my smarting.
 (*Scyllaes Metamorphosis* ll. 373-78)

스킬라는 글라우코스의 사랑을 짐에 빗대어 말하는 동시에 강물에 머리를 가리우고 가라는 말을 통해 그가 반인반수임을 강조한다. 또한 글라우코스의 사랑을 떠남과 고통이라는 대조적인 요소에 빗대어 말함으로써 그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미지까지 더해진다.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비너스와 아도니스』(*Venus and Adonis* 1593)의 비너스는 아도니스의 어머니 뫼라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이 둘의 관계는 근친상간적인 뉘앙스를 지니게 된다¹⁴⁾. 게다가 아도니스는 성적으로 발달이 안 된 소년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아도니스를 향한 비너스의 제어되지 않는 성적인 욕망은 에로틱한 수준을 넘어 금기된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16세기 후반 영국의 오비드 풍의 설화시들은 금기된 성적 욕망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 환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 에로틱한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모순과 불온함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킨다(Keach 219). 게다가 로지는 화자(narrator)가 아닌 글라우코스(Keach)의 입을 통해 스킨라를 찬미하고 비난한다. 말로우는 리앤더를 세련된 유혹자 이면서도 성적으로 순진한 인물로, 히어로로 살마키스와 연결시켜 여성적이면서도 남성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또한 보석보다 보리 말을 가지고 놀기를 더 좋아한 이솝 우화의 닭모티프를 히어로와 리앤더에게 적용시켜 이들이 육체적 관계에 무지한 듯한 아이러니까지 더하여 성적 욕망 속의 대조적인 요소들과 심리를 자의식적으로 표현한다. 셰익스피어 역시 성적인 사랑에 대한 대조적인 견해들을 화자가 아닌 비너스와 아도니스의 입을 통해 직접 말하게 함으로써 왜곡된 성적 욕망에 담긴 모순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렇게 『변신』의 설화의 기초가 된 신화 속 신비감을 축소하고 왜곡된 욕망을 자의식적으로 드러냄으

14) 오비드 『변신』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숲 속을 달리면서 사냥을 즐기곤 하다가 지치면 함께 수풀에 누워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정한 사이이다. 셰익스피어는 오비드가 그의 비너스와 아도니스 이야기에서 비너스의 신적인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히포메네스(Hippomenes)와 아틀란타(Atlanta) 이야기를 제거하고, 살마키스(Salmacis)와 헤르마프로디토스(Hermaphroditus), 뫼라(Myrrha), 그리고 나르시시스(Narcissus)와 에코(Echo) 모티프를 그의 『비너스와 아도니스』에 적용시켜 비너스와 아도니스의 관계의 금기성을 강조한다. 오비드의 아도니스는 그의 어머니 뫼라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랑의 불길에 복수라도 하듯이 저항 없이 비너스의 애인이 된 것(Venus fell in love with him: wherby/ He did revenge the outrage of his mothers villanye. *Met.* X. ll. 604-05)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뫼라의 금기적인 욕망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아도니스는 제 어머니의 금기적 욕망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너스에게 뫼라의 이미지가 암시되어 비너스와 아도니스는 뫼라 이후 한 세대를 지난 근친상간적인 관계를 성 역할이 전도된 채 재현한다("Sexual Perversity" 322).

로써 신화를 조롱하는 것이 16세기 오비드 풍 시들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했지만(Martindale 135) 당대 성적 정체성에 대한 정립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¹⁵⁾ 장르(genre)라는 것은 특정 사회를 나타내는 사회적 코드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Dubrow 3).

르네상스영국은 19세기 의학과 생물학적인 남녀 이분법이 아직 고착화되지 않은 사회였다(Jones and Stallybrass 105-06).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18세기에 대두되었으며(Schiebinger 25-45, Laqueur 61-62), 18세기 이전까지 남녀차이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여성을 좀 덜 진화된 남성으로 보는 것이었다. 당시의 유사 의학 문헌들을 연구하며 라퀴(Thomas Laqueur)같은 역사학자들도 16세기의 해부학자들이 여성의 성 기관을 단순히 남성의 성기와 음낭을 뒤집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8-10). 따라서 여성이 일정한 생리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몸 속의 성 기관이 밖으로 돌출되면서 남성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암시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남성이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대자연의 진화의 순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치부되어 그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는 덜할지라도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엘리자베스 시대인의 생리학적인 인식에 지워지지 않는 가능한 현실로 남아 있었다. 영국 르네상스 무대에서 남자 배우들만으로 구성된 극단의 성 역할 바꾸기에 관한 극들의 인기 역시 성적 정체성에 대한 애매함을 인식한 당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생물학적인 성 기관의 차이일 뿐인 성별차이에 대한 불안은 영국 르네상스 담론에 보편적인 여성 혐오와 남성 우월성에 대한 과장된 수사나 공격적 표현을 낳게 된다. 적절한 남녀 역할에 대한 집착은 곧 현상 유지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변화를 사회가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도 통하는 것이다(Faludi, Chap.1).

한편 16세기 후반 영국의 오비드 풍의 시에서도 남성의 금기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 혹은 금기적인 욕망을 지닌 여성들에게 금기는 기괴함과 숭배라는 양면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작동하며 여성들의 의식을 지배한

15) 당대 여성이 덜 진화된 남성으로 인식되어진 문맥 속에서 인간의 성적 욕망은 방향성을 잃고 어느 대상으로든 향하기 쉬워지기 마련이다.

다. 로지의 스킬라가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해 가며 침묵하지 않고 남성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녀의 언어는 글라우코스와의 구애에 대한 거절과 불만이라는 수동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흔히 말이 많은 여성은 음란함과 연관지어 묘사되지만 스킬라의 육체에 대한 에로틱한 묘사는 없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가부장 사회의 전통적인 수동적인 여성상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그 경계 안에서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사실 그녀의 이러한 반응은 반인반수 글라우코스의 금기된 성적 욕망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결한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스틴의 갈라테아도 작품 속에서 대부분 피그말리온의 애무와 키스를 받는 여성이 아닌 침묵하는 석상으로 내내 존재한다. 리앤더의 가슴에 몸을 내던지는 말로우의 히어로 역시 노골적으로 리앤더에게 구애하는 것이 아닌 고분고분한 눈매를 가지고 그녀 자신을 그에게 산 제물로 바치듯이(her body throws/ Upon his bosom, where with yielding eyes/ She offers up herself a sacrifice. Hero and Leander. ll. 46-48)그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가부장 사회의 전통적인 성 역할은 잠시 어지럽혀진 듯 하지만 결국은 유지된다. 또한 말로우는 여성 히어로의 육체에 대한 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의상을 통해 그녀의 수줍음을 표현하는 반면¹⁶⁾넵툰(Neptune)에 의해 만져지는 전라의 리앤더의 모습은 자세히 묘사한다. 옷을 벗고 수영하는 리앤더에게 다가가는 해신 넵툰의 모습은 동성애적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히어로와 리앤더』는 결국 작품 속 남성 간 동성애적 뉘앙스는 허용하지만 수동적인 성 역할을 벗어나는 여성의 모습은 허용하지 않는 남성중심적인 문맥 속에 있다. 동성을 향한 남성의 욕망은 욕망하는 자신에게나 대상에게 주저하지 않는 형태로 표현되는 반면,¹⁷⁾ 여성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금기적인 성적 욕망 앞에 그 수동성, 주저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성의 욕망의 금기성은 남성에 비해 더욱 부각된다. 또한 금기적인 성적 욕망 앞에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주저한다는 것은 가

16) 말로우는 히어로뿐만 아니라 그녀가 착용한 산호 세공품이 얼굴을 붉히는 것으로 묘사하여 그녀의 의상을 통해 그녀의 육체적인 반응을 표현한다.

17) 말로우는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나는 여자가 아니요, 아니란 말이요.”(You are deceived, I am no woman, I. II. 192)라고 사정조로 넵툰에게 말하는 리앤더를 통해 신들의 욕정을 이성(異性)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리앤더의 미숙함을 웃음거리로 만들기까지 한다.

부장 사회가 지정한 금기의 권위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금기는 기괴함과 숭배라는 양면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작동한다.

『히어로와 리앤더』에서 히어로와 리앤더의 관계가 성적으로 깊어 질수록 리앤더는 재갈 물리고 고삐 썩은 야생마처럼 열정에 몸달아 하는 반면(II. 141-45) 히어로는 성적으로 리앤더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처녀성에 대한 의식이 커지는 동시에(II. 77-86) 한 순간 사랑에 빠져든 자신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을 주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I. 357-64). 리앤더와 달리 히어로는 혼외 정사라는 금기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로지의 스킬라와 마스틴의 갈라테아 역시 남성의 금기적인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즉 남성이 지정한 금기를 남성이 범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게다가 반인반수 남성인 글라우코스의 성적 욕망을 거부하는 스킬라를 그녀의 언어가 고대세계 완고한 여성예언자 시빌라(Sibylla)의 언어를 뛰어넘기까지 하며 주기 싫어하는 인색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하기까지 한다¹⁸⁾. 이는 리앤더의 혼전 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즉 남성의 금기적인 욕망을 거부하는 히어로를 심하지는 않지만 짐짓 위선적으로 그리는 『히어로와 리앤더』와도 연결 된다¹⁹⁾. 여성은 남성의 금기적인 욕망 앞에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을 거부할 경우 비난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물론 셰익스피어의 비너스는 아도니스에 대한 그녀의 금기적인 욕망을 표현하지만 가부장적인 논리를 담은 남성의 언어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오비드의 『변신』과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영국의 오비드 풍의 설화시들도 남성중심적으로 금기적 욕망이 갖는 모순적인 감정을 그려내는 동시에 남성의 금기적인 욕망을 거부하는 여성에 대한 비난까지 더해지고 있어 『변신』의 가부장적인 문맥의 모순이 한층 더 심화된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오비드 『변신』의 신화적 신비감을 줄임으로써 성적

18) *Scilla* in wit surpasseth grave Sibilla,

Scilla hath words, but word well storde with grutching: (II. 183-84)

19) 말로우는 혼전 순결을 지키려하는 히어로를 당대 창녀를 뜻하는 '비너스의 여사제(Venus' nun, I 45)'라고 부르며 사랑을 거부하는 페트라르카(Petrarch)적인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시야를 나타낸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함을 당대 시대상을 따라 더 반영한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시대를 지나 영국 르네상스시대 오비드풍 설화시 속 여성들은 오비드 『변신』 속 여성들보다 그네들의 욕망에 대해 덜 의지적인 모습을 보인다. 오비드 『변신』 속 여성들은 자신의 금기적인 욕망에 대해 가부장적인 가치관 안에서 갈등하지만 그것을 합리화 하며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적인 면을 드러낸다. 하지만 영국 르네상스 오비드 풍 설화시에서 여성의 금기적 욕망은 기괴함과 숭배라는 금기가 갖는 특유의 양면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작동하며 여성들의 의식을 지배할 뿐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의지로 발현되지는 않는다. 이는 자신의 여성성을 비하하여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 했던 엘리자베스 1세로 대변되는 영국 르네상스 시대 여성의 역설적인 현실을 잘 보여준다.

정체성을 생물학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사적인 영역을 사회적으로 정의된 자아가 점점 더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 노출시킴으로써, 자기 결정이나 또는—더 여전히 불안감을 주는—외부적 조종에 영향을 받기 쉬운, 그 어떤 선행적 혹은 결정 요인을 지니지 않는 자아의 명령을 창조하여 사실상 엘리자베스는 본질적인 주체성의 영역을 비워버린다

By divorcing identity from biology and exteriorizing the supposedly private in an era in which the socially defined self seemed increasingly inessential, Elizabeth in effect evacuated the realm of essential subjectivity, creating the specter of a self with no a priori or fixed determinants, and thus susceptible to self-determination or—more disturbing still— external manipulation. (Cohen 29)

안팎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신의 여성성을 비하하고 이용한 엘리자베스의 본질적인 주체성의 영역은 어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게 비워지는 상황을 맞는다. 이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주창한 주체라는 것이 철저히 남성임을 반증 한다(Belsey 149-50). 더욱이 아이러니 한 것은 주체가 되

는 남성의 금기적 욕망 속에서 여성은 점점 그 욕망의 대상으로서 의지적인 모습이 약화됨을 오비드의 『변신』 과 영국 르네상스 오비드 설화시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 주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급적으로 유동적인 남성들이 가지기 마련이었던 사회, 정치, 경제적인 불안감을 여성의 몸을 통제함으로써 억제하거나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몸에 쏟아부리면서 해소하는 작업이, 16세기 내내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Park 29-47). 계층상승을 효과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결혼과 가족형성을 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은 이를 위해 여성의 순결을 남성의 소유물로 강조하는 한편(Wrightson 30, 68-70) 영국 르네상스 오비드풍 설화시들에서 볼수 있듯이 결혼 밖에 있는 그들의 성적 욕망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모순을 보인다. 게다가 『변신』의 여성들 보다 자신의 금기적 욕망에 대해 주체적으로 합리화조차 하지 못하는 영국 르네상스 오비드 풍 설화시 여성들은 철저히 남성 중심적으로 전개된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영국 르네상스의 역설의 표지인 셈이다.

IV. 결 론

캠벨(Joseph Campbell)에 따르면 신화란 신들의 이야기이며 신은 인간의 삶과 우주에 기능하는-개인의 욕신과 자연에 기능하는-동기를 부여하는 힘, 가치체계의 화신이다(67). 신화는 원형적인 꿈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현몽하고 있기 때문에(54) 인간의 가치체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 로마 신화 소재를 차용하여 변형시킨 오비드의 『변신』 속 신과 인간 사이의 금기적인 성적 욕망은 남성 중심으로 금기가 작동하는 당대 로마 사회의 가치체계를 드러내게 된다.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자신들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용한 르네상스 시대에도(Ferguson 6-7) 오비드 『변신』 신화는 신비적 요소가 제하여진 영국에서 유행한 오비드 풍 설화시로 변형되어 당대 영국에서도 남성 중심으로 성적인 금기가 작동하는 가치체계와 그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한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함을 효과적으로 그려낸다. 그러나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자의식이 발달한 당대 영국

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덜 진화한 남성으로 간주된 동시에 영국 르네상스 오비드풍 설화시 여성들이 오비드 『변신』 속 여성들보다 그네들의 금기적인 욕망에 주체적인 의지를 덜 보이기까지 한다. 오히려 남성들의 금기적인 욕망을 거부하면 비난을 받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중세의 신 중심적인 가치체계를 벗어나 주체적 국가, 개인으로 나아가려했던 영국 르네상스가 대상인 여성을 이용해야만 주체로 설 수 있었던 한 단면을 꼬집는 것이다.

인 용 문 헌

-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서울: 민음사, 1997.
- 최창모. 『금기의 수수께끼: 성서속의 금기와 인간의 지혜』. 파주: 한길사, 2003.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신화학』. 임봉길 옮김. 파주: 한길사, 2005.
- Aughterson, Kate, ed. *The English Renaissance*. London: Routledge, 1998.
- Bate, Jonathan. "Sexual Perversity in *Venus and Adonis*." *Shakespearean Criticism* 67 (2002): 320-27.
- Belsey, C. "Disrupting sexual difference: meaning and gender in the comedies." *Alternative Shakespeare*. Ed. John, Drakakis. London: Methuen, 1985.
- Burckhardt, J.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Trans. S. G. C. Middlemore. London: Phaidon, 1965.
- Campbell, Joseph with Bill Moyers. *The Power of Myth*. Ed. Betty Sue, Flowers. New York: Anchor Books, 1991.
- Cohen, Stephen. "(Post)modern Elizabeth: Gender, politics, and the emergence of modern subjectivity." *Shakespeare and Modernity*. Ed. Hugh Grady. New York: Routledge, 2000. 20-39.
- Dubrow, Heather. *Genre*. London: Methuen, 1982.
- Enterline, Lynn. *The Rhetoric of Body from Ovid to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P, 2000.
- Faludi, Susan.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 New York: Anchor Books, 1992.

- Ferguson, Wallace K. *The Renaissance Historical Thought*. Boston: The Riverside P. Cambridge, 1948.
- Freud, Sigmund. *Totem and Taboo*. Trans. A. A. Brill. New York: Moffat, Yard and Company, 1919.
- Griffin, Alan H. F. "Ovid's *Metamorphose*." *Greece & Rome, Second Series* 24.1 (Apr., 1977): 57-70.
- Heisch, A. "Queen Elizabeth I: parliamentary rhetoric and the exercise of power." *Signs* 1(1975): 31-55.
- Hyland, Peter. *An Introduction to Shakespeare's Poems*. New York: Palgrave, 2003.
- Jones, Ann Rosalind and Peter Stallybrass. "Fetishizing Gender: Constructing the Hermaphrodite in Renaissance Europe." *Body Guards: the Cultural Politics of Gender Ambiguity*. Ed. Julia Epstein and Kristina Straub. New York: Routledge, 1991. 81-107.
- Keach, William. *Elizabethan Erotic Narratives* New Brunswick: Rutgers UP, 1977.
- Keilen, Sean. *Vulgar Eloquence*. New Haven: Yale UP, 2006.
- Kenny, E.J. Introduction. *Ovid: Metamorphoses*. Trans. A. D. Melville. Oxford: Oxford UP, 1986. xii-xxix.
- Laqueur, Thomas Walter. *Making Sex: Body and Gender from the Greeks to Freud*. Cambridge: Harvard UP, 1992.
- Lerner, Laurence. "Ovid and the Elizabethans." *Ovid Renewed*. Ed. Charles Martindale. Cambridge: Cambridge UP, 1988, 121-35.
- Lodge, Thomas. *Scillaes Metamorphoses: Enterlaced with Vnfortunate Loue of Glaucus*. London: Richard Jhones,

1589.

- Marder, Elissa. "Disarticulated Voices: Feminism and Philomela." *Hypatia: A Journal of Feminist Philosophy* 7 (1992): 148-66.
- Marlowe, Christopher. *Marlowe's Plays and Poems*. Ed. M. R. Ridley. London: Dent, 1965.
- Maslen, R. W. "Myth Exploited: the Metamorphoses of Ovid in Early Elizabethan England." *Shakespeare's Ovid*. Ed. A. B. Taylor. Cambridge: Cambridge UP, 2000. 15-30.
- Milowicki, Edward J. and Wilson R. Rawdon. "Ovid through Shakespeare: The Divided Self." *Poetics Today* 16 (1995): 217-52.
- Ovidius, Publius Naso. *Shakespeare's Ovid: Being Arthur Golding's Translation of Metamorphoses*. Ed. W. H. D. Rouse. Trans. Arthur Golding. New York: Norton, 1966.
- Park, Katherine. "Dissecting the Female Body: From Women's Secrets to the Secrets of Nature." *Crossing Boundaries: Attending to Early Modern Women*. Ed. Jane Donawerth and Adel Seeff. Newark: U of Delaware P, 2000. 29-47.
- Schiebinger, Londa. *Feminism and the Body*. New York: Oxford UP, 2000.
- Scholes, Robert. and Robert Kellog. *The Nature of Narrative*. London: Oxford UP, 1979.
- Shakespeare, William. *The Arden Shakespeare: The Poems*. Ed. F. T. Prince. London: Methuen, 1969.
- Wrightson, Keith. *English Society 1580-1680*. London: Hutchinson, 1986.

Abstract

Women's Tabooed Desire in Patriarchal Society: English Renaissance and Ovidian Narrative Poems

Kim, Min Jeong

Men's inner problems and set of values are projected on the story of myth, because men have personified natural phenomena as a living relationship between gods and men in life. Tabooed desire of gods and men in Greek and Roman myth story of Ovid's *Metamorphoses* shows psychological phenomena of patriarchal, male-centered society. English Renaissance Ovidian narrative poems emphasize not only patriarchal values but also physical features disrupting sexual difference by taking mystical motifs away from *Metamorphoses*. However, females of early modern English Ovidian poems don't rationalize their tabooed desire like females in *Metamorphoses*. They just feel confused about their own desire because of patriarchal values operating in them while males in the poems openly express their tabooed desire blaming the females who denied their tabooed sexual demands. This less autonomous psychology of women than females in *Metamorphoses* indicates that in 16th century England where traditional social and economic roles were sloughed off by Renaissance movement, patriarchal English Renaissance ironically depended on the female

other in order to be autonomous subject because male's ontological fears about the transformation of the self fixated primarily on gender difference.

Key Words: 16C England Renaissance, Ovidian narrative poem, Women's tabooed desire, patriarch, *Metamorphoses*
16세기 영국 르네상스, 오비드풍 설화시, 여성의 금기적 욕망, 가부장제, 『변신』

논문접수일: 2014.05.25

심사완료일: 2014.06.16

게재확정일: 2014.06.21

이름: 김 민 정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487-71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술로 2길 15, 105동 809호(원일아파트)

이메일: silentsky81@hanmail.net